

보도시점 2026. 7. 26.(일) 12:00 (2026. 7. 27.(월) 조간)

“한 번의 상담을 더 깊이...”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보건관리전문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 누적 건강데이터 통합한 맞춤형 보건관리 모델 구축
- 상담 준비·대상자 선별 보고서 작성시간 줄여 노동자 건강관리에 집중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공단 안산병원이 지난 9일 열린 「2026년 보건관리전문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사업장 보건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직업병 예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 안산병원은 ‘한 번의 상담을 깊이 있게’를 주제로 일반·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뇌심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직무스트레스평가 등 다양한 산업보건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 대시보드에서 분석하는 보건관리 모델을 선보였다.

기존에는 건강검진과 작업환경, 직무스트레스 등 각종 자료가 개별적으로 관리돼 보건관리자가 여러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또한 한 명의 보건관리자가 다수 사업장의 노동자를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동일한 노동자를 반복적으로 상담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한계가 있었다.

공단 안산병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축적된 건강정보를 통합해 노동자의 건강 변화 추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건강검진 결과뿐 아니라 뇌심혈관질환과 직무스트레스 위험도 등을 함께 분석해 건강위험이 높은 노동자를 우선 선별하고, 맞춤형 상담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료 준비와 상담 대상자 선별, 보고서 작성 등 반복적인 행정업무 시간을 90% 이상 줄여 보건관리자가 노동자 상담과 건강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2년 정도에 머물렀던 건강정보 활용 범위도 과거 누적 데이터 전체로 확대해 단편적인 결과 안내가 아닌 장기적인 건강 변화에 기반한 상담이 가능해졌다.

강양원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은 “보건관리의 핵심은 노동자와 충분히 소통해 건강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보건관리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노동자의 건강 증진과 직업병 예방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1개 병원과 4개 외래재활센터를 운영하며 산재노동자의 전문재활치료와 직업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 전문기관 운영 등 산업보건 서비스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직업병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대상 수상을 계기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의료서비스 전반에 적극 활용해 노동자의 건강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 직업병 예방과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직업복귀를 지원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의료사업본부 병원운영부	책임자	부 장	성명희 (052-704-7512)
		담당자	팀 장	신미영 (052-704-7519)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양원 과장(왼쪽부터 세 번째) 지난 9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6년 보건관리전문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에서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